

# 태안주민, 삼성그룹에 집단항의

원유유출 후 4년간 1000억원 집행 안돼 ... 피해대책 마련 촉구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피해주민들은 12월7일 원유 유출사고 4년째를 맞아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쟁기대회를 열고 삼성그룹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해안유류피해민총연합회> 소속 주민 1000여명은 결의문에서 “기상 상황을 무시하고 무모한 항해를 한 삼성중공업 크레인선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삼성중공업은 신문에 사과문만 올린 후 지역 협력기금으로 1000억원을 기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성중공업에 책임을 미루는 이진희 회장과 삼성그룹은 피해주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약속한 대로 지역 협력기금 기탁 및 피해지역 해양생태계 복원 사업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2/07>